

十 교회목표 十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Pilgrim

十 2013년 표어 十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레 19:18)

十 행동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 만져주시는 예수님 (마 8:1-4)

4권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4장까지 '왕의 탄생'을, 5장-7장까지는 '왕의 가르침'인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왕의 능력과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왕의 귀환'에 그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때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나병에 걸린 남자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절하며 "예수님,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3절)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가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체적 질병을 고치셨다면, 예수님의 만지심은 그의 내면세계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특별히 그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마다 거듭나고, 놀라운 새생명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로 나아갈 것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의 세 가지 영적 레슨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과 둘째,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셋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손이며, 주님의 발이고, 주님의 목소리이며, 주님의 뜨거운 가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터치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Jesus who touches us (Matt-8:1-4)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four books of Gospel, Jesus is shown differently: "Jesus who is King" in the book of Matthew, "Jesus who is a son of man" in the book of Luke, that is to say that the accomplishment of Jesus is emphasized, and "Jesus who is a servant" in the book of Mark, Jesus who is God" in the book of John. Moreover, Matthew was written for the Jews, Mark for the Romans, Luke for the Greeks, John for all the people.

"The birth of King" was written in Matthew 1-4, "the teaching of king" in Matthew 5-7, the Sermon on the Mount. And "the king's ability and love" in Matthew 8-24, and from v. 25 to the end, "the return of king" is the core of content.

After Jesus finished the Sermon on the Mount and came down, the incident of which Jesus healed the sick started to appear. It was not until then that the ability and love of king, Jesus began to beam down on human beings.

A man with leprosy came, knelt down, and earnestly said,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At that time,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v.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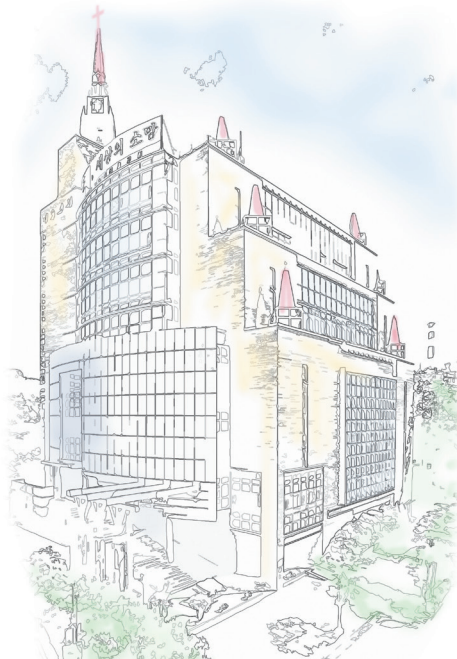
If the word 'I am willing, be clean' is Jesus power, the fact that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means his love. In other words, If Jesus spoken word cured his physical disease, then Jesus touched the man means that he cured his heart and soul.

The leper heard the rumors about Jesus: Someone said he is Messiah; the other said he healed many patients: whoever heard his teaching was born again, and attained a wonderful new life. That's why the leper decided to approach to Jesus.

We must learn the following three lessons from this incident. First, a leper came to Jesus. Second, it is Jesus who touches. Third, it is we who are Jesus hands. The church is what is called the body of Christ. All of us became a part of Jesus body. In a word, we are Jesus hand, his foot, his voice, and his warm heart.

My beloved Christians,

First of all, we must come before Jesus Christ, and experience his healing and recovery by his touching. By being His hand and foot,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the passage of blessings to heal many people.



# 홍해작전 개전 임박

## - 오늘 찬양예배시 홍해작전 발대식 -

### - 2013홍해작전 조직 -

2013년 홍해작전이 오늘 찬양예배 발대식을 시작으로 박노철 담임목사와 박철현교수(총신대 구약학)의 인도로 6월 6일(목)부터 25일(화)까지 새벽 5시 분당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홍해작전은 주의 택한 이스라엘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합심하여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도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로 말씀과 기도가 은혜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며 주님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사령관: 박노철 담임목사
- 지 도: 한상은 목사
- 참모장: 하영수장로
- 차 장: 송인권 집사
- 기획참모부: 최규초 집사 / 김상태 집사  
교회학교부장
- 예배참모부: 김광욱 집사 / 윤동수 집사  
예배위원회 예배위원
- 동원참모부: 최형열 집사 / 교구위원회  
부교구장 교구간사
- 홍보참모부: 김규태 집사 / 허 숙 권사 순례자팀
- 봉사참모부: 이은옥 권사 / 제2권사회  
여전도회 피택권사
- 안내참모부: 김광룡 집사 / 스테반회  
피택장로 피택집사



## 교구별 특별찬양

### - 오늘 찬양예배시 1,16교구를 시작으로 -

그동안 체육대회와 함께 격년제로 실시되어 오던 교구찬양대회가 올해에는 교구목사 담당교구별로 연합하여 주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으로 드러지게 된다.

이전에 전 교구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개최한 교구별 찬양대회가 성도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교구간 불필요한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특히 교구에 따라서는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참여에 많은 부담감을 갖는 등 아쉬웠던 점이 있어 이번에는 작년 교구체육대회가 교구목사가 섬기시는 교구별로 연합하여 모였던 것처럼 찬양대회 역시 몇 몇 교구가 연합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형식으로 6월 첫주부터 7월 첫주 사이 총 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드러지게 된다.

모든 교구 가족들이 미리 모여 연습할 때부터 서로 호흡을 맞추어 단합하는 기회가 되고 자기 교구만이 아니라 같은 교구목사님이 섬기는 인근 교구와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 좋은 화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하는 모든 교구원들이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순서는 다음과 같다.

- 6월2일 1,16교구
- 6월9일 2,3,4교구
- 6월16일 5,6,7,8교구
- 6월23일 9,10,12교구
- 6월30일 11,14,15교구
- 7월 7일 13교구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90)

(문 89)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가 걸어가며 예언을 했고 그가 또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삼상 19:23-24)고 했습니다. 왜 벌거벗고 예언을 했습니까?

(답) 이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다윗은 라마 나웃에 피신 중에 사무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신학생들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그곳으로 자기의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과 그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전령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그곳에 온 목적은 다 잊어버린 채 주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들이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그들은 사울에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같은 일들이 두 번 반복되어 다윗을 잡으러 온 이들이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윗은 체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잡겠다고 라마 나웃에 이르러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미 삼상 15:17-35에서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 만나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 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라마 나웃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악령에 시달린바 있고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삼상 16:14-23, 18:10-11, 19:9) 사울이 사무엘이 집전하는 예배처소에 접근했을 때 사울은 자기 절제를 상실한 채 흥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노래했고 소리쳤으며 선지자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악한 왕에게 전에 사무엘이 베델에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경험했던 그런 체험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예배들과 달리 사울은 지나친 열심과 흥분한 나머지 소리치며 춤을 추다가 옷을 벗고 밤과 낮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었습니다.(삼상 19:24) 이 같은 수치스런 행동은 하나님 뜻에 반한 자기도취적 행위이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호국의 달 특별기고

# 순교자의 신앙과 한국교회



**박경수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해마다 6월이 오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깝게는 한국전쟁과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멀리는 이민족의 침입과 압제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애국지사들과 군인들의 충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작은 이익보다는 큰 유익을 위해,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국선열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달 6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상기시킵니다. 사실상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에게 빛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분이었던 테르툴리아누스(Tertulianus, 160-220)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자란 나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기 교회는 박해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

**박해의 시기에는 복음의 증인들에게 피를 흘리는 '적색순교'가 요구되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순교가 요청됩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를 증거했습니다. 순교(Martyrdom)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 '마르티리온'과 라틴어 '마르티리움'(Martyrium)에서 유래되었는데, '증인' 혹은 '증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바치며, 그 분이 가르치신 바를 증언하고 증거한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여전히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교자의 신앙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의 시기에는 복음의 증인들에게 피를 흘리는 '적색순교'가 요구되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순교가 요청됩니다. 오늘날 박해가 없어졌다고 해서 순교의 정신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만이 순교는 아닙니다. 이제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수도자의 성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백색순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녹색순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적색순교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인내와 훈련과 투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자신을 초월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면 '내 신앙이 너무 안이하고 나태하지 않은가?'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복음의 정신으로 매일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백색순교와 녹색순교의 신앙을 가질 때에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역설이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가복음 8:35)\*

홍해작전을 시작하며

## 홍해. 그 축복의 바다



**하영수 장로**  
(홍해작전 참모장)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난 지 며칠이 못되어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군대가 병거를 몰고 질풍노도로 추격해 오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았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 모세는 파도치는 홍해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성난 파도를 가르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세계가 넘보지 못하는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홍해작전을 통하여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우셨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우리교회에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서울교회 성도됨을 증명하는 마크로 자리매김했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시온의 대로가 되었음은 수많은 체험적 간증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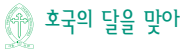
우리는 금년에도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습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건너가야 합니다. 새벽을 가르며 교회로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받으면 홍해는 갈라지고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기만 하면 됩

니다.

우리에게 홍해는 축복의 바다입니다. 국가와 교회 가정과 내 앞에 홍해 같은 시련들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라고 몸이 불편하다고 집에 두고 나 혼자만 건널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아프거나 죽지도 말아야 합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면 죄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도 반드시 우리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홍해 너머 젖과 꿀이 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는 반드시 승전의 나팔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 나의 조국, 대한민국

6월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 희생된 국  
가유공자를 추모하고 예우하는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1950년 6.25전쟁 시 모  
진 고난속에서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수호한  
호국영령과 부상자들, 세계평화의 임무를 안고  
이국만리 월남전에 참전해 군현대화와 경제발  
전에 초석을 이루며 희생한 분들로 국가의 부  
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며 희생한 분들입니다.

지금도 6.25전쟁에 참전하셨던  
고령 상이용사분들이 병상에  
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  
니다. 당시에 내복도 변  
변치 않아 솜바지를 입  
고 꿩꿩 얼어붙은 주먹  
밥을 입김으로 녹여  
굽어 먹으며 영하 20  
도가 넘는 고지에서



김형배 집사(3교구 대한민국 상이용사경외  
기획실장) 외손녀 이가람

외할아버지는 어께  
에 총을 맞은 상처가 있  
으십니다. 나라를 위해 베트  
남 전쟁에 참전하셨을 때 총을  
맞으셨고 지금까지도 그 상  
처때문에 비오는 날 밤에는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할아  
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  
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여자인 나도 군인이 되어 우리  
나라를 내 손으로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해마다 현충원을 찾아갔지만 작년에는 다  
른 해보다 제 마음이 더 몽클했습니다. 왜냐하  
면 현충원 가기 전 외할아버지 몸에 난 상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대표해 남자회장과 함께 꽃  
을 총열대 제단에 올렸는데 그 때 가슴이 두근  
거렸습니다. 꼭 내가 그 분들을 직접 뵈고 인사

동상에 걸린 몸으로 빗발치는 포탄속에서 나라  
를 구하며 희생되신 분들, 월남 정글 속에서 적  
을 찾아 해매며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이 밤에는  
비에 젖어 손발이 하얗게 퉁퉁 붙어있고, 달려  
드는 모기를 쫓으며 밤새 우고매복하다 베트  
공 B-40의 공격을 받아 숨지고 부상당한 분들,  
155마일 전선을 지키며 수많은 도발을 막고,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백령도포격 등에서  
희생된 분들... 우리는 이 분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내 대  
신 희생되신 분들이라는  
마음으로 추모해야 합  
니다.

6월6일은 현충일  
로 호국영령들이 문  
헌 동작동 현충원에  
서 국가주관 추모행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신 순국선열  
께 조금이나마 나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고  
통스러운 일제강점기에서  
나라를 되찾으신 순국선열  
과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에서 나라를 구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게  
해주신 국군 용사들이 계신 현충원! 그 분들이  
모셔져 있는 이 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릅  
답고 소중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를 지켜내기 위  
해 병역의 의무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잘 지키고 보존  
하여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올해도 현충원을  
방문하는 일이 기다려집니다.

사와 전우들, 가족들,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찾  
아 추모와 헌화를 하며 이 분들의 값진 희생 속  
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계기  
를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  
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부를 안겨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아직  
도 휴전 중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으로 평  
화통일이 오도록, 또 굶주리고 철의 장막 속에  
서 인간을 신으로 섬기며 고생하는 북한동포들  
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루 속히 오  
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께 생활 속에서 가끔은 감사한 마음과 예우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6월3일(월)부터 5일(수)까지 왕십  
리중앙교회 신양사경회를 인도한다. 4일(화) 미래한국미  
디아 제7기 편집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한다. 5일(수) 한국  
로잔위원회 정기모임에 참여한다. 7일(금) 북한인권 한국  
교회연합창립 발기인모임에 참여한다.

■ 득남 : 4교구 이경근 성도 김경원 성도  
7교구 조중화 성도 박소현 성도  
■ 득녀 : 11교구 임원목 성도 강유진성도

■ 주간식당방식 : 바울선교회(6.2) 엘리야선교회(6.9)

■ 금주의 식사 : 서명조 집사 김효순 권사 가정  
김태삼 집사 조승자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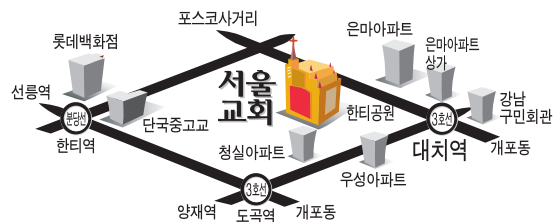
1. 6월 6일부터 시작되는 흥해작전을 통해 모든 성도  
들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  
할 수 있도록
2. 6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주일찬양예배 시에 드리는 교구  
특별찬양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  
을 기억하며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애국애족하는 서울교회 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전 11시 15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